

“노래로 살아낸 날들, 서로를 향한 응원으로 번질 것”

내달 1일 광주 무대 앞둔 가수 안치환

14집 ‘인간계’ 신곡, 대표곡으로 엮은 모두의 이야기
초창기 곡부터 신작까지…오랜 음악 여정 흐름 담아
같은 시간 살아온 이들에 전네는 공감과 위로의 무대

“분노와 절망의 시간을 지나며, 이제
는 세상을 노래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
졌습니다.”

광주 공연을 앞둔 지난 14일 광주매
일신문과 인터뷰한 안치환은 담담하지
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격한
직설을 지나 한동안 숨을 고른 뒤, 감정
을 가다듬은 노래로 ‘자기 페이스’를 되
찾았다는 것이 안치환의 최근 고백이
다.

그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곡을 더 쓰
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시대의
부조리 앞에서 예술가가 포기할 수 없
는 발언의 책무를 분명히 했다.

“작년 말에 쓴 ‘세상의 빛’은 조금 음
악적으로, 또 감정을 한 걸음 지나고 나
서 만든 노래입니다. 조금 더 음악적으
로 다듬어진, 제 페이스를 되찾은 곡이
라 할 수 있죠.”

안치환은 최근 몇 해를 “인간이 가진
가장 비겁하고 천박한 것들이 발산된
시대”로 규정했다. 군부독재 시절의 위
기감과도 결이 달랐다고 했다. “그 분
위기에서 어떻게 노래해야 할지를 오
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소 격
하고 직설적인 노래들이 나온 것 같아
요.”

다만 그는 “한 인물에 대해 더는 쓰지
말자, 그럴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으
며 노래의 방향을 새롭게 다잡았다고
말했다.

소통 방식에 관한 인식도 분명했다.

유튜브가 정보·생활 영역에선 유익하
지만, 정치적 영역에선 ‘감정의 극단을
자극하는’ 역작용이 컸다고 했다.

“변화하는 환경의 흐름을 잘 알고 있
지만, 다만 무엇을 선택할지는 더 고민
해보려 합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출
연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어요. 내 편만
모여 희화화하는 회로는 싫었거든
요. 진보든 아니든, 내 음악을 듣고 마
음을 여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큼니다.”

그에게 음악은 ‘내 편’을 위로하는 도
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을 이어주
는 언어에 가깝다.

“음악에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의 마음
을 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날 싫어하던
이들에게도 내가 바라는 세상을 함께
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투어의 구성은 스스로 ‘이야기’
라 부르는 누적의 서사다. 1988년 프로
데뷔 이후 공백 없이 내온 정규·기획 앨
범들의 대표곡을 현재의 시간에 맞춰
엮었다.

“오랜 시간 발표한 곡들이 많다 보
니, 이번 공연에 어떤 노래를 넣을지 고
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각 앨범에서
한 곡씩만 골라도 무대가 꽤 찰 정도에
요. 그래서 2시간 남짓 이어지는 공연
안에 초창기 곡부터 최근 작품까지, 제
음악 인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담아
냈습니다. 결국 제 노래들이 곧 이야
기가 되더군요.”



내달 1일 광주 무대에 서는 가수 안치환

도시별 공연마다 특별히 구성이나
분위기를 달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
조했다. “모든 관객은 평등합니다. 어디
든 내 노래의 ‘에센스’를 최선으로 보여
줄 뿐이에요. 다만 광주에서 어떤 곡을
부를 때 벅차오를 수는 있겠죠. 그건 이
도시가 가진 역사와 기억 때문일 겁니
다. 매 공연 다른 무대를 준비하기보다,
어디서든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려고
합니다.”

14집 ‘인간계’는 그가 마주한 시대의
현실을 농축해 담은 ‘지금의 이야기’다.
앨범명 그대로 ‘인간 세상’의 민낯을 응

시하겠다는 의지다. ‘오늘도 또 노동자
가 죽었다네’, ‘쪽팔리잖아’, ‘빨갱이’,
‘바이러스 클럽’ 등 제목만으로도 현실
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방향이 드러난
다.

수록곡 ‘개념연연’은 사회적 발언
에 꼬리표를 붙이는 시선을 반어적으
로 비튼다. “가사를 보면 ‘이러면 내가
좌파야?’ ‘내가 이상한 거야?’ 같은 자
조가 있어요. 불필요한 언어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의미죠. 세상이 혼란할수
록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지고, 그런 말
들 속에서 예술가가 오히려 왜곡되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개념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
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내가 느끼는 대
로 말하고 노래할 뿐인데, 그걸 자주 진
영 논리로 해석하려 하더군요.”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가 바라보는
‘저항가요’의 개념으로도 이어진다.

“세상이 제자리를 찾았다면 굳이 ‘저
항가요’라는 말도 필요 없을 겁니다. 다
만 세상이 조금 비틀려 있을 때, 그 균
형을 바로잡으려는 노래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시
인은 시로,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면 돼
요. 예술가는 세상의 부정 앞에서 비겁
하지 않은 눈길과 마음으로 표현할 의
무가 있습니다.”

안치환은 공연을 ‘함께 만드는 현장’
이라 표현했다. 무대 위 가수 혼자 완
성하는 게 아니라, 관객의 반응과 에너
지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하나의 공연이
된다는 것이다.

“라이브의 힘은 무대와 객석의 에너
지가 뒤엉키고 솟구치고 가라앉는 데
있어요. 함성·박수 소리가 공연 분위기
의 절반을 만듭니다.”

그는 이번 투어의 메시지를 ‘응원’으
로 요약했다. “가장 응원하고 싶은 대
상은 특히 나와 같은 세대, 앞뒤 10년쯤
의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나
이 들어가며 새로운 노래를 듣고 공유
하면서, 멋지게 늙어가면 좋겠어요.”

안치환이 규정하는 ‘좋은 노래’는 먼
저 자신을 굳건하게 만드는 노래다.

“저는 제 노래로 제가 가장 위로를 받
아요. 그 행복과 위로가 넘쳐 흘러 듣는
이에게 전해질 때 가장 기쁩니다. 곡을
만들고, 편곡하고, 밴드와 연주하고, 녹
음·수정·믹싱하는 모든 과정이 행복해
요. 중간중간 여행으로 리듬을 바꾸며
다시 써나가기도 하죠. 창작의 원동력
은 꾸준함 속에서 옵니다. 작품의 완성

도와 진심만큼은 언제나 지키고 싶어
요. 그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
래라고 믿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종종 붙는 수식 ‘우리
시대의 가객’은 옛 노래들이 증명한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소금 인형’, ‘우리가
어느 별에서’로 이어진 ‘시의 노래’들,
‘광야에서’, ‘마른 잎 다시 살아나’로 새
겨진 민주화의 기억, ‘내가 만일’, ‘오늘
이 좋다’의 다정한 감성까지. 시대와 장
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감과 울림을
전해온 그의 음악은 여전히 무대 위에
서 현재진행형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지난해에는 ‘HISTORY 안치환’으로
그 발자취를 묶었고, 올해는 제목을 ‘H
IS STORY’로 바꿔 현재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운다. “그가 걸어온 역사’에서
‘그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로 초점을
이동한 셈이다.

그 이야기의 종착지는 다시 ‘빛’이다.
분노와 슬픔의 시절을 지나, 그는 이제
노래로 연대와 응원을 이야기한다. 그
길 위에서 그는 편을 가르키보다, 서로
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이어가고자 한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불필요한 말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술로 말하면 됩니
다. 저는 그저 노래로 말할 뿐이에요.”

‘HIS STORY 안치환 콘서트’는 대구
(10월11일), 서울(10월18일)을 거쳐 오
는 11월1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
대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 대표곡과
더불어 14집 ‘인간계’의 신곡들이 현재
형의 서사로 묶여 관객을 만난다.

“특별히 다르게 준비하지는 않았어
요. 다만 어떤 노래는 여기서 울컥할 수
도 있겠죠. 관객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
니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응원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진 기자

빛바랜 시간 위에 담아낸 생의 물빛

이승범 개인전, 29일부터 남구문화예술회관

지역에서 시인으로 활동 중인 이승범 작가가 고회를
맞아 첫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1일
까지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남루하고 부끄러운 내 영혼의 물빛’을
주제로, 작가가 정년퇴임 후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 작

업을 통해 삶의 흔적을 담아낸 자리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뒤 붓을 잡은 그
는 그간 그려온 수채화 37점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각
작품에는 직접 쓴 시가 함께 전시된다.

작가는 낡고 오래된 사물, 곧 생명력을 잃어가는 일
상의 풍경 속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해냈다.

대표작 ‘북어’는 작가 자신의 인생을 투영한 작품이

다. 그는 “과도의 절곡과 덕장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겪
으며 흙빛의 몸으로 비틀어지고 단단해진 북어의 켜한
듯하지만 간절한 시선을 닮고 싶었다”며 “그것이 곧 나
의 정체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존재의 의미
를 담은 이 작품은 그가 바라본 인생의 단단한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승범 작가는 “사라져가는 것들의 모습이 곧 우리
삶과 닮아 있다”며 “그림 속에 담긴 감정과 사색이 관
객들의 마음에 닿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이승범작 ‘북어’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